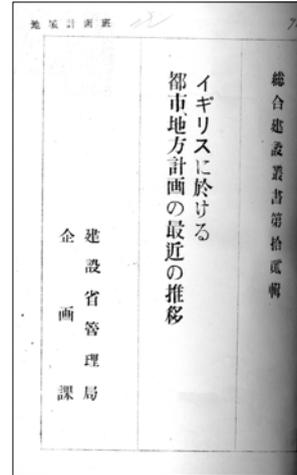


52 英・獨・日の國土計劃 영·독·일의 국토계획

1961-1963년 / 일본 건설성 외 / 02,10-08 건58영 1961-1963

이 책은 ① 영국의 도시·지방계획에 관한 최근 추이(179면), ② 독일의 국토계획(34면), ③ 전후 일본의 국토종합 개발계획, ④ 일본의 전국 종합개발계획의 원안(60면)과 ⑤ 이것에 대한 설명서(211면), ⑥ 구미(歐美)지역 개발제도 해설서(35면)를 합본한 것이다.



‘영국의 도시·지방계획에 관한 최근 추이’는 1951년 일본 건설성 관리국 기획과에서 일어로 번역 발행한 것이다. 원명은 『Town & County Planning(1943-1951)』인데 179면이다. 영국과 우리나라는 법체계뿐 아니라 행정도 판이하게 다르지만 이 계획 자체는 우리가 추진하는 국토계획이나 지역계획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 자료는 필자가 일본 건설성에서 얻어온 자료란 것을 첨언한다.

‘독일의 국토계획’은 1961년 일본의 도시센터에서 발행한 책이다. 34면의 해설과 20매의 계획도면이 첨부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독일의 국토계획은 이른바 공간질서계획(Raumordnung)이란 이름으로 세계 최초의 국토계획이다.

히틀러가 창안한 독일의 국토계획은 1934년 5월 30일에 이른바 국토질서 5대 원칙을 천명한다. ① 대도시와 공업 포화지역을 소개할 것, ②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유입되는 노동력을 막을 것, ③ 농촌에 새로운 농민 정주지를 건설할 것, ④ 대도시 공업은 다른 입지조건이 유리한 곳으로 이전할 것, ⑤ 가능한 한 많은 지방경제자립권을 형성할

것 등이다.

⑤항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대목이었다. 만약 전쟁에서 공업지역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면 국민경제의 파탄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지역경제를 육성하라는 것이었다.

‘독일의 국토계획’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운수계획이다. 독일은 운수의 기본이 운하이고, 운하가 없는 곳은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짜여 있다. 독일뿐 아니라 서유럽은 29m 이상의 폭포도 없는 평탄한 지역이니 운하 주행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A)와 같이 집중 배제를 위한 운하, 철도, 도로의 3권분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독일 교통의 특징은 (B)처럼 어디서 어디를 가든 자유롭게 짜여 있다는 점이다.

